<h1>나 혼자만 레벨업-70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q1ca6441b32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70화</p>  
<p>[하급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1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[악마의 영혼 1개를 획득합니다.]</p>  
<p>.</p>  
<p>.</p>  
<p>경험치 1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[악마의 영혼 1개를 획득합니다.]</p>  
<p>2시간 동안 닥치는 대로 하급 악마들을 잡았다.</p>  
<p>진우는 영혼 개수를 확인했다.</p>  
<p>[수집한 악마의 영혼: 309 / 10,000]</p>  
<p>퀘스트 3퍼센트 완료.</p>  
<p>만약 같은 속도로 계속 사냥할 수 있다면 2시간 후에는 레벨까지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.</p>  
<p>현재 레벨은 61레벨.</p>  
<p>60레벨에서 61레벨로 올라가는 데 C급 던전 아홉 개 분량의 경험치가 필요했다.</p>  
<p>소요된 시간은 이틀 정도였다.</p>  
<p>그런데 여기서는 4시간이면 1레벨을 올릴 수 있다?</p>  
<p>'미친 거지.'</p>  
<p>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이렇게 즐겁게 사냥하는 게 얼마만일까?</p>  
<p>'그때 이후로 처음인가?'</p>  
<p>합정역 인던에서 더 이상 레벨이 오르지 않을 때까지 지하 1, 2층을 왕복했던 기억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았다.</p>  
<p>"끼엑!"</p>  
<p>진우의 단검이 번쩍이면 어김없이 하급 악마가 하나씩은 쓰러졌다.</p>  
<p>"끼아악!"</p>  
<p>"키엑."</p>  
<p>"케겍, 켁!"</p>  
<p>때로는 여러 마리도.</p>  
<p>잠깐 사이 진우는 또 하급 악마 20마리를 잡았다.</p>  
<p>'대박인데?'</p>  
<p>경험치와 영혼 수가 순식간에 잡은 악마들 숫자만큼 늘었다.</p>  
<p>거기에 아이템은 덤이다.</p>  
<p>아이템을 수거하는 진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.</p>  
<p>'뿔은 거의 무조건 나오네.'</p>  
<p>[아이템: 하급 악마의 뿔]</p>  
<p>입수 난이도: 없음</p>  
<p>종류: 잡동사니</p>  
<p>하급 악마의 머리에 달린 작은 뿔 2개. 악마의 뿔은 고급 마법의 재료로써 비싼 값에 팔려 나간다.</p>  
<p>잡동사니 '악마의 뿔'.</p>  
<p>상점에 팔기만 해도 20만 골드를 얻을 수 있었다.</p>  
<p>'저번에 켈베로스도 이빨 하나에 15만씩 얹어 주더니... 악마성 몬스터들이 후하긴 후하구나.'</p>  
<p>근래 몇 차례 상점의 유용함을 맛본 진우에게 잡동사니는 이제 잡동사니가 아니었다.</p>  
<p>나중에는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골드란 말씀.</p>  
<p>'뭐 하나 버릴 게 없네.'</p>  
<p>진우는 기쁜 마음으로 팔 건 팔고, 창고에 보낼 건 보내면서 하급 악마들의 사체를 뒤졌다.</p>  
<p>그러던 중.</p>  
<p>'저건 뭐지?'</p>  
<p>처음 보는 아이템을 발견했다.</p>  
<p>악마의 터져 나온 내장 사이에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것은.</p>  
<p>[아이템: 진입 허가서]</p>  
<p>입수 난이도: ??</p>  
<p>종류: ??</p>  
<p>악마성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허가서입니다. 층간 이동 마법진의 1층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</p>  
<p>돌돌 말려 있는 두루마리 문서였다.</p>  
<p>'진입 허가서?'</p>  
<p>문서를 펼쳐 보니 안에는 이해 못할 각종 도형과 문장이 그려져 있었다.</p>  
<p>결국 도움이 될 만한 단서는 아이템 설명이 다였다.</p>  
<p>'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는 아이템...'</p>  
<p>설마?</p>  
<p>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여긴 악마성 내부이기도 하지만 대성타워의 안이기도 하다. 악마성에도 층이 나뉘어 있다면 여기가 1층이 된다.</p>  
<p>'필드형 던전이라 층이 나뉘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...'</p>  
<p>그럼 대성타워처럼 100개의 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?</p>  
<p>진우는 던전의 규모에 혀를 내둘렀다.</p>  
<p>'...진짜 100층은 아니겠지?'</p>  
<p>그걸 확인해 볼 방법은 하나였다.</p>  
<p>마법진을 찾는 거.</p>  
<p>'여기서 층간 이동 마법진이 있을만한 장소는...'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빛의 기둥에서 멈췄다.</p>  
<p>'저기뿐이다.'</p>  
<p>처음부터 목적지로 정하긴 했지만 하급 악마들을 정신없이 사냥하느라 어느새 다른 쪽으로 온 상태였다.</p>  
<p>'슬슬 가 볼까?'</p>  
<p>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마침 근처에 있던 하급 악마들을 다 잡기도 했고.</p>  
<p>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'소환.'</p>  
<p>그림자 저장 스킬로 봉인해 둔 그림자 병사들을 추출 스킬을 쓸 때와 달리 별다른 주문이 필요 없었다.</p>  
<p>그냥 의지로 불러내기만 하면 된다.</p>  
<p>스르륵.</p>  
<p>진우의 눈앞에 아이스 베어 우두머리의 그림자를 추출해 만들었던 거대한 마수병이 나타났다.</p>  
<p>"크르르륵."</p>  
<p>두 발로 서 있는 괴물 곰.</p>  
<p>크기가 집채만 했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 앞에서는 온순한 강아지나 다름 없었다.</p>  
<p>"숙여."</p>  
<p>"크릉."</p>  
<p>마수병이 얌전히 엎드리자 진우가 냉큼 그 위에 올라탔다.</p>  
<p>"이랴!"</p>  
<p>진우가 발로 옆구리를 차자마자 마수병은 빛의 기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쿵, 쿵, 쿵, 쿵!</p>  
<p>몸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민첩하기까지 하니 목적지와의 거리가 빠르게 줄어들어 갔다.</p>  
<p>가끔 방해꾼이 튀어나와도.</p>  
<p>"키릭!"</p>  
<p>"킥킥!"</p>  
<p>크어어엉!</p>  
<p>마수병의 번개 같은 후려치기 한방에 금방 상황이 종료되었다.</p>  
<p>호오.</p>  
<p>진우가 대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'재미로 한번 타 봤는데 괜찮네?'</p>  
<p>자주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즉석에서 이름까지 붙여 줬다.</p>  
<p>"앞으로 네 이름은 탱크다."</p>  
<p>"그워어어!"</p>  
<p>마수병, 아니 탱크가 목을 빼며 길게 울었다.</p>  
<p>좋다는 거야, 싫다는 거야?</p>  
<p>워낙 목청이 좋은 놈이라 어떤 의민지도 모르겠다.</p>  
<p>그사이에도 빛기둥이 점점 가까워졌다.</p>  
<p>점차 속도를 줄이던 탱크가 빛기둥 앞에서 멈춰 섰다.</p>  
<p>"잘했다."</p>  
<p>바닥에 내려선 진우가 탱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려보냈다.</p>  
<p>진우가 돌아섰다.</p>  
<p>그러자 '띠링'하고 익숙한 기계음이 떴다.</p>  
<p>[층간 이동 마법진을 발견했습니다.]</p>  
<p>바닥에 새겨진 원형의 마법진.</p>  
<p>그 마법진에서 발사된 빛이 하늘까지 닿아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안으로 발을 들였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아무 일도 없었다.</p>  
<p>고개를 갸웃거리던 진우가 몇 걸음 더 걸어서 원의 중앙에 섰다.</p>  
<p>그제야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[개방된 층이 없습니다.]</p>  
<p>[어디로 이동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"몇 층까지 있는데?"</p>  
<p>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.</p>  
<p>'어디가 끝인지 알려면 직접 올라가 보는 수밖에 없나?'</p>  
<p>진우는 잠시 고민했다.</p>  
<p>경험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레벨을 올리고 올라갈까, 아니면 올라가서 올릴까.</p>  
<p>'여기는 다른 인던과 다르게 몬스터 리스폰이 안 되니까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비효율적이지.'</p>  
<p>게다가 상층에는 다수의 영혼을 가진 악마도 있다고 했다.</p>  
<p>경험치 면에서나, 퀘스트 면에서나 최대한 빨리 위로 올라가는 게 이득이 아닐까 하는 결론에 다다랐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올라가자.</p>  
<p>진우가 말했다.</p>  
<p>"2층."</p>  
<p>[진입 허가서가 필요합니다.]</p>  
<p>진우는 지시에 따라 창고에 넣어 두었던 두루마리를 꺼냈다.</p>  
<p>두루마리는 꺼내자마자 빛과 함께 사라졌다.</p>  
<p>[악마성의 2층이 개방되었습니다.]</p>  
<p>[2층으로 올라갑니다.]</p>  
<p>우우웅-</p>  
<p>마법진에서 강렬한 빛이 올라오기 시작했다.</p>  
<p>동시에 진우가 깨달았다.</p>  
<p>'아... 그러니까 이건.'</p>  
<p>그냥 엘리베이터였군.</p>  
<p>빛기둥의 실체를 알게 된 순간, 진우는 눈부신 빛과 함께 2층으로 전송됐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2층, 3층, 4층... 그리고 27층.</p>  
<p>이틀간의 성적이었다.</p>  
<p>진아에게는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해 놨다.</p>  
<p>'남은 시간은 5일.'</p>  
<p>점차 빨라지고 있는 공략 속도를 감안했을 때, 어쩌면 꼭대기일 것으로 짐작되는 100층까지는 5일도 채 안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완전히 황폐화된 도시.</p>  
<p>'이제는 여기가 어디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네.'</p>  
<p>층마다 매번 다른 도시들이 나왔다.</p>  
<p>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파괴된 정도가 심해져서, 현재 자신이 있는 27층은 도시의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었다.</p>  
<p>도심 한복판에 융단폭격이라도 떨어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?</p>  
<p>진우는 상념을 떨쳐 버리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'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'</p>  
<p>손목의 시계를 확인했더니 벌써 오후 11시였다.</p>  
<p>여긴 낮이나 밤이 없었다.</p>  
<p>일정은 시계에 의존해야 했다.</p>  
<p>11시라면 눈을 좀 붙여 둬야 할 시간이었다.</p>  
<p>내일 또 던전을 공략할 수 있으려면 말이다.</p>  
<p>하지만 그전에.</p>  
<p>'성과를 좀 확인해 볼까?'</p>  
<p>진우는 퀘스트 진행률을 응시했다.</p>  
<p>[수집한 영혼의 개수: 2,116]</p>  
<p>'2,100개...'</p>  
<p>하루에 거의 악마 천 마리씩.</p>  
<p>이틀간 많이도 잡았다.</p>  
<p>아직 만 마리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다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상층의 악마들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.</p>  
<p>'일단 위로 가는 게 급선무네.'</p>  
<p>다음은 레벨.</p>  
<p>"헉!"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[레벨: 67]</p>  
<p>금세 레벨이 67까지 올라왔다.</p>  
<p>경험치 100짜리 하급 악마를 잡다가 경험치 300을 주는 중급 악마를 잡으니 레벨업 속도가 대폭 증가했다.</p>  
<p>'레벨은 진짜 잘 오르네.'</p>  
<p>가득한 몬스터, 풍부한 경험치, 적절한 난이도.</p>  
<p>악마성은 최고의 레벨업 장소였다.</p>  
<p>그리고 올라가는 건 레벨뿐만이 아니었다.</p>  
<p>진우는 틈틈이 스킬의 숙련도까지 올렸다.</p>  
<p>지금도 진우의 손바닥 위 허공에는 '나이트 킬러'가 둥둥 떠 있었다.</p>  
<p>스킬 지배자의 손길.</p>  
<p>손을 대지 않고도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.</p>  
<p>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 스킬 숙련도를 올리는 데 할애했다.</p>  
<p>'어차피 지배자의 손길은 마나도 안 드니까.'</p>  
<p>신경을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좀 피곤하긴 해도 스킬의 활용도에 비하면 싸게 먹히는 거였다.</p>  
<p>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.</p>  
<p>['지배자의 손길' 스킬의 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'좋았어!'</p>  
<p>진우는 씩 웃으며 등을 벽에 기댔다.</p>  
<p>조금씩, 조금씩 강해지는 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.</p>  
<p>눈이 스르르 감겨 왔다.</p>  
<p>'그러고 보니 지금쯤이면 길드장 면허도 나왔겠네.'</p>  
<p>유진호는 잘하고 있을까?</p>  
<p>오랜만에 혼자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지 문득 늘 뒤에 붙어 다니던 유진호의 얼굴이 떠올랐다.</p>  
<p>이미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한 장남과, 마스터 자격은 있지만 학생인 차남.</p>  
<p>절대 쉬운 싸움은 아니었다.</p>  
<p>'힘내라, 유진호.'</p>  
<p>마음속으로나마 유진호를 응원한 진우는 천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유진호는 비장한 얼굴로 고급 한정식당에 들어섰다.</p>  
<p>아버지의 취향을 고려해 직접 선택한 장소였다.</p>  
<p>"회장님은?"</p>  
<p>"와 계십니다."</p>  
<p>유진호가 꿀꺽 침을 삼켰다.</p>  
<p>"이리로."</p>  
<p>안내를 받아 아버지 유명한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드르르르.</p>  
<p>미닫이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자 긴장감이 몇 배나 상승했다.</p>  
<p>잠깐 약해지나 했지만.</p>  
<p>유진호는 다시 한 번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았다.</p>  
<p>"웬일이냐? 네가 먼저 약속을 다 잡고."</p>  
<p>"아버지, 용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봐 주셨으면 합니다."</p>  
<p>"이건...?"</p>  
<p>"제 길드 마스터 면허증과 그간의 레이드 기록입니다."</p>  
<p>"마스터... 면허증? 네가?"</p>  
<p>유명한이 의외라는 눈빛을 하자 유진호가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네, 아버지."</p>  
<p>유명한은 말없이 유진호가 건넨 문서들을 훑어보았다. 그의 눈에 점점 이채가 어리어 갔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아버지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유진호는 심장이 너무 거세게 뛰어서 제대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.</p>  
<p>"그래서."</p>  
<p>유명한은 슬며시 서류들을 상 위에 올려 놓으며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유진 길드를 네가 맡아 보고 싶다는 게냐?"</p>  
<p>"그렇습니다."</p>  
<p>"흐음..."</p>  
<p>순간 유명한의 얼굴에 놀랍다는 감정과 함께 고민의 흔적이 나타났다.</p>  
<p>'아버지께서 나와 형을 두고 고민하시다니.'</p>  
<p>유진호가 감격했다.</p>  
<p>그 정도만 해도 유진호에게는 큰 결실이었다.</p>  
<p>평소 같았으면 여기서 만족했을지도 모른다.</p>  
<p>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.</p>  
<p>"아버지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외부인에게 길드 마스터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고."</p>  
<p>"그만."</p>  
<p>유명한이 손을 들었다.</p>  
<p>동시에 유진호의 입이 멈추었다.</p>  
<p>아버지의 '그만'은 유진호 집안에서는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.</p>  
<p>"네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."</p>  
<p>"예?"</p>  
<p>유진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오늘 먼저 연락해 약속을 잡은 건 자신이었다. 그런데 대뜸 소개해 주고픈 사람이 있으시다니.</p>  
<p>누굴까?</p>  
<p>유진호의 호기심이 극대화됐을 때, 유진호가 들어왔던 문 말고 다른 쪽 문이 드르르 열렸다.</p>  
<p>"아... 안녕하세요."</p>  
<p>20대 후반? 30대 초반? 그 정도로 보이는 남자 한 사람이 유진호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.</p>  
<p>누구지?</p>  
<p>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.</p>  
<p>유명한이 턱짓하자 남자는 유명한 옆에 와서 앉았다.</p>  
<p>"이쪽은... 고명환 헌터님."</p>  
<p>'고명환?'</p>  
<p>유진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들어 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.</p>  
<p>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요즘 시끄러운 백호 길드 레드 게이트 사건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 중 한 분이시다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